십자가의 뒷심이 없는 신앙
(갈 3:1~6)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뒷심이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의 뒷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의 뒷심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 될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뒷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뒷심이 없는 사람의 믿음의 삶의 내용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뒷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잘 견뎌 내거나 끝까지 원래 목적했던 바를 이루어 내는 그런 힘을 뒷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이창호 9단과 조치훈9단이 대국에 들어갔는데 조치훈 9단이 초반에 강세를 떨칩니다. 그런데 그만 이창호 9단에게 지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치훈 9단이 초반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창호 9단에게 마지막에 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또 독일과 이태리가 축구를 하는데 이태리가 2대 0으로 초반에 강세를 떨치다가 그만 3대 2로 역전패를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라틴계통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혈질적으로 아주 분발하여 강세를 펼치다가 독일 사람들의 은근과 끈기에 져서 뒷심에서 밀리는 바람

에 졌다.'
증권시장에서는 '증시가 초반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해서 사람들이 '와~' 몰려서 시청률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날이 갈수록 시청률이 떨어질 때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초반의 강세와 후반의 뒷심으로 밀어주지 못하게 되는 약세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강세를 떨치면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체로 마쳐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으로 보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성령과 육체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극과 극의 반대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타락한 개념이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느냐는 얘기는 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패커의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거룩은 도덕성과 영성의 양대 기둥 위에 서있다고 했는데, 이 도덕성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영성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서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에서 율법으로 마친다는 것이 제임스 패커의 말을 빌리면 도덕성으로 마친다는 뜻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도덕성으로 마치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에서 육체로 마치는 것과 비교하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자, 도대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런 시작과 마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외지로부터 갈라디아교회로 들어와서-그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됨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갈라디아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지키던 안식일이라든지 금식기도일 같은 것을 지키라는 것이고, '달'은 매달 첫째 날을 월삭으로 기념해서 지키라는 얘기고,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런 절기를 말하는 거고, '해'라는 것은 안식년과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든지 절기 같은 것, 구약에서 지키던 것들을 지켜야 그리스도인 됨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갈라디아교인들이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정말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분노하면서 갈라디아교인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공박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의가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확증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갈라디아교인들은 이렇게 다시금 구약의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인 됨의 완성을 꾀하는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왜 이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대체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교회가 선례를 남긴 것을 보면 분명히 율법주의로 되돌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들이 율법으로 육체로 끝나는 율법주의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을 갈라디아교인들에게 할 정도로 바울이 아주 과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민이 아니겠지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 진리겠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자들이 율법주의로 빠질 때,
그러면 도대체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으려 하고 왜 이들이 월삭과 절기를 지키려 했느냐?
율법주의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지키면 내가 복을 주리라'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을 꾀하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차이가 난다면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땅에서의 형통과 축복을 겨냥한 것이고, 율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순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지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어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만 남게 되었어요.
율법주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 지도층 사람들이 걷던 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복과 형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땅위에서의 복인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이방인들은 열심히 나가서 모략과 중상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건강을 꾀하려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돈을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뒷심이 있으면 앞심도 있겠네요. 초반의 강세가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주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믿을 때 초반에 나타나는 은혜의 강세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 하자면 먼저 대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도저히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육체에 버리셨습니다. 육체에 묶으셨습니다. 묶으신 다음에 육체에다가 도저히 인간의 한계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죄 값에 대한 저주요,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인격이 그 육체에 가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게 되면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내셨습니다. 대속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십니다.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뜯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내 몸이 내 마음의 살 같아요. 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식이 내 마음에 살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잘못된 연합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해야 할 것이 이상하게 이 몸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몸을 매개로 이 땅의 다른 것들과, 사업과 내 마음이 살처럼 붙어버리고, 자식이 내 마음의 살처럼 붙어버리고, 주님의 살이 찢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이유가 바로 내 마음에 살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격리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 사함 속에 일어나는 마지막 은혜의 역사는 뭡니까?
하얀 블라우스에 와사비 간장이 묻으면 더러워집니다. 둘 다 깨끗한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몸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된 영성 안에서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이 연합할 때는, 와사비 간장도 깨끗하고 흰 블라우스도 깨끗하지만 이 둘이 붙으면 추악하고 더러움이 나타나는 것처럼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그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초반의 은혜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십자가의 뒷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날 때 십자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삼중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면서 삼중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가 매장되었다가 부활하는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이 십자가의 뒷심은 우리를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밀어붙여 하늘에 앉히게 됩니다. 이 뒷심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 마음의 소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마음의 적극적인 활동 -사람이 적극성을 띠어야 살지요, 수동적으로만 있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적극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은행에 가있다고 한다면 적극성을 띤다는 것이 은행장을 만나서 돈을 대출받는 것이고, 거래처에 갔다면 적극성을 띠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뒷심이 하늘로 밀어 올려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교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2011년 3월 28일 7시 23분 지금 현재시각에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뒷심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밀어 올려붙여버렸습니다.
이럴 때 적극성을 띠고 나타나는 일이,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를 느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창조주로 깨달으시고 있는 그 주님의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모든 앎, 깨달음, 느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적극성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뒷심을 발휘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죄 사함의 역사를 받고 나서 다시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금식기도일이나 하는 율법에 정한 할례,

이런 것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할례만이 아니에요. 이 할례를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의 특징은 이 세상의 복을 겨냥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뒷심이 발휘된 성도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느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복락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적극성을 띱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 땅에서의 복락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리새인이 자기들이 의로운 줄로 알았던 이유는 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이 잘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칭의의 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맞지 않습니까? 사업도 잘되고 자식들도 모두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맞아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 그럼 무슨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창기 때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설교하신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난 뒤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꼭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소리소리 지르십니다.
그 확신의 바탕이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부흥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의롭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초대교인들이 집 잃고 박해받고 요절하고 순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지 않아서입니까? 사도바울이 몸에 가시를 껴안고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키면서 겨냥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복락입니다.
십자가의 뒷심이 발휘될 때 신앙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교제할 때 그 교제에 참여함으로 아버지하나님을 많이 벌고, 아버지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아버지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깊이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복락입니다.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 획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획득하려 하고 아버지를 회복하려 하고 아버지를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보면 난리가 났어요.
다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두 다.
'봉사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 성수주일 하라, 헌금생활 열심히 하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라, 긍정의 힘을 통해 삶의 복을 꾀해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훈련해라, 수련해라'
완전히 교회 안에 율법주의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 승진하게 해 주실 거다, 건강하게 해 주신다, 전부 이 땅에서의 복을 지향하는 율법주의가 판치는 교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지켜서, 내가 행해서 내 가정이 평탄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인격이 성숙되고, 전부 초점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와 충성, 이런 것은 내가 해서 하나님께 복을 꾀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삼중축복 중의 마지막 행동의 축복, 액션의 축복의 단계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면 그러면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와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매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실 때 나타나는 열매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행동하시는 것으로 다 표현되어야 될 것들이 '내가 그걸 지키면, 내가 도덕성을 잡으면,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면,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고, 저런 형통의 복을 주신다.'

열매를 모두 조항으로 바꿔버리고 율법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매진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하게** 해 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뒷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는 이 십자가의 뒷심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보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는 게 믿음이에요. 구리 뱀 장대를 보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은 것처럼…
죄 사함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죽은 것이다'라고 동일시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교회는 십자가사건이 있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완료된 사건임에도 '지금 바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갈라디아교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늘 지금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뒷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순간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밀어 올려버리는 십자가의 뒷심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들이 관객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다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뒷심도 우리가 계속 바라볼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도록 십자가를 밝히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래서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는 것과 율법주의로 빠지는 기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자, 내가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율법주의로 빠질 것인가,
십자가의 뒷심이 나타나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찾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감사가 넘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하늘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돈 만나서 기뻤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기쁘고, 건강이 생겨서 기뻤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앎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내가 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까?
오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식의 문제가 내 눈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마음에 들어와서 걱정이 생기면 이제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아,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일이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니까 행동을 하려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몸을 통치영역으로 생각해서-이제 벌써 선악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했고,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의 입장에 서서-걱정이 되는 대로 내 마음을 한번 움직여서 해결해 보려

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벌써 이 '잘못되어가고 있는데'라는 기도의 서두에서부터 끔찍하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려고 하는 상황, 돈이 적게 벌리는 이 상황이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판단합니다. '아, 잘못된 거구나, 잘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면 반드시 통치영역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사업이라는 통치영역을 몸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사업이 잘못되어 망하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말만 해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옛 아담의 상태로 타락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스테반 집사조차도 그렇게 담담하고 평강하게 천사의 얼굴로 맞이했던 그 고통의 현장을 안절부절 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며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괴로워하시면서 버려지신 것이 바로 마음이 몸에 묶이는 거였어요.
그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이 땅에서 평강이 주어지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경우에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게 무엇이지요?
이 세상에서 복을 형통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법칙을 행하려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은 무엇에서 얻습니까?
이 세상의 일이 잘되면 의롭게 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 본문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식걱정, 사업걱정, 건강걱정의 상황이 내 마음에 닿으려고 할 때에, 그 상황보다 먼저 십자가를 밝히 봅니다.
그 상황을 먼저 밝히 보지 않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코로, 감각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의 상황이 몸을 통해 마음으로 전달되기 전에, 그것들을 밝히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밝히 보게 될 경우에, 그 밝히 보게 됨이 계속해서 매순간마다 이어져 나갈 때, 율법주의로 빠져들지 않고, 하늘로 십자가의 뒷심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아버지를 느끼게 되고, 먹게 되고, 찾게 되고, 벌게 되고, 하나님아버지로 내 마음이 가득히 만족하게 될 때, 내 몸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서 이 몸이 움직여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행동과 액션이 필요할 때가 되면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이 몸을 통해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을 향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열매가 하늘에서 맺혀진 것처럼 땅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상태가 무엇이냐를 보면, 지금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고,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마음과 똑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마음이 붓을 잡듯이 잡고 밑바탕 한자 글씨 위에다 써나가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밑바탕 글씨 위에 내가 내 몸을 마음으로 잡고 '충성'이라고 써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 복을 주시니까…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비전을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하라', '긍정의 힘을 사용하라'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다 그걸 통해서 무얼 이루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을 꾀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꾀하려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의 뒷심이 작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붙인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에 앉힌 자들이 어떻게 땅에서 형통을 찾습니까?
땅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은 이걸 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통과 복이라는 게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의 선악의 판단 기준에 따라가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좋은 것,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일류대학 들어가면 좋은 것,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 호불호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그것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게 선이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주인 됨에 종노릇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초대교회에 그런 식의 복을 누린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런 구약 식의 복을 누렸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복의 제시는,
'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아하는 그 복을 내가 주겠다, 돈, 장수함 그런 것을 다 주마, 그러면 한번 너희의 그 죄악 된 상태 그대로 내가 제시한 율법을 지켜보아라.'

이러한 뉘앙스로 주신 것이 맞다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 된 구조 위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죄악 된 구조에서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말고는 이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합니다.

다이어트가 그렇게 하기 힘들고 잘 안 되지만, 몸으로 먹고 사는 배우들은 다이어트를 합니다. 율법이 내 먹고 사는 일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면 지킵니다. 돈 벌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영어가 어렵다고 하지요? 영어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영어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뒷심이 빠지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십자가의 뒷심을 허용하는 길은 오감관이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경영자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내 몸을 움직이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 이전에 십자가를 그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상황보다 더 먼저 명확하게 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볼 때,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돈이 없어도 문제가 생겨도 평강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 때문에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 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행동하게 되는 십자가의 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매순간 밝히 보지 못할 때 반드시 우리는 '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자'라는 율법주의로 빠져서 행동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뒷심이 발휘될 수 있는 상태에 고스란히 노출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감관을 통해 이 세상과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소한 일마다 십자가를 더 먼저 밝히 봄으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수 있는 삼중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